

<div>2026년 7월, 출범 확정</div> <div>제물포구·영종구</div> <div>서구·검단구</div>		<div>보도자료</div>		<div>이제는 인천입니다</div> <div>2025 APEC INCHEON</div>	
		배포일자	2024년 5월 3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섬해양정책과	담당자	• 섬정주지원팀장 김종철 ☎ 440-4981 • 담당자 김기애 ☎ 440-498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강화 테마노선 개방
- 5월 16일부터 ‘강화전쟁박물관 ~ 대릉시장’ 안보관광 프로그램 운영 -

인천광역시는 5월 16일(목)부터 11월 30일(토)까지 강화군 비무장지대 인근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강화 테마노선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만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보관광 프로그램이다. 2021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57회 운영, 726명이 참여했다.

강화 테마노선은 강화전쟁박물관 → 6.25 참전용사기념공원 → 강화 평화전망대 → 의두분초 → 철책선 도보길 → 불장돈대 → 대릉시장 → 화개정원을 둘러보는 코스다.

철책선 도보길 약 1.5km를 포함해 총 62.5km로 약 5~6시간 소요되며, 이동 중에는 해설사가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하고 애뜻한 이야기를 들려 준다.

참가 신청은 4월 30일(화)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과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리’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면 되며, 1인당 참가비 1만 원은 지역 특산품으로 돌려준다.

강화도는 국난극복의 피난처에서, 한반도 평화관광의 시작점으로 국가적 위기의 순간마다 피난(안식)처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온 곳이다. 북한과 마주한 강화의 북쪽 해안에는 옛 군사시설인 돈대가 아직도 국방과 평화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번 강화 테마노선에 포함돼 있는 의두분초에서 시작하는 해안 철책선 도보길을 따라 걷고, 실향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대룡시장에서 레트로 감성의 시간여행도 즐겨볼 수 있다.

또한, 테마노선 코스 외에도 볼 것들이 다양하다. 특히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연미정, 대몽항쟁을 위해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하던 모습을 담은 고려천도공원 등을 볼 수 있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DMZ 특색이 반영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테마노선 운영으로 안보관광이 활성화돼, 침체된 강화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등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운영 노선도

